****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불의에 맞서며 치유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산하 [Davidson College](https://www.davidson.edu/) 학생인 랭글리 호이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장로교회를 다닌 랭글리는 대학교의 전원적인 교정을 벗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스트 샬럿의 거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곳은 불의가 만연한 곳입니다.

"대학 시절 여름철 두 번을 샬럿의 이 지역에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곳 주민 대부분은 저소득층 흑인입니다. 그들은 구조적 인종 차별, 경찰 폭력, 주택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랭글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신앙과 공동체에 깊이 자리 잡은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 졸업 후에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YAV) 프로그램](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yav/)은 19-30세의 청년들이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일 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범교회적, 신앙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며, 공동체 내의 이웃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책임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랭글리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에서 인턴십을 했던 여름의 경험을 떠올리며,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장로교 [공공정책 증인 사무처](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washington/)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의 청년 자원봉사자로 일한 일 년 동안 랭글리는 자신의 신앙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존재하는" 방법, 특히 "회중의 활력을 회복하고 구조적 인종차별을 타파하며 제도적 빈곤을 제거하려는" 미국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 사역](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에 따라 살아가는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공공정책 증인 사무처에서 일할 때,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녀를 인도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사역이었습니다.

"미국장로교의 백인 우월주의 역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반흑인주의에의 동참했던 것을 직시하기 위해서 교단은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입니다."

미국장로교의 네 개의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중의 하나인 [성령 강림절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ntecost/)은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헌금의 40 퍼센트는 지역 사회 기금 마련과 지역 사역을 위해 우리가 소속된 교회로 되돌아가며, 나머지 60퍼센트는 장로교 선교국 사역을 통해서 위기에 놓인 어린이, 청년, 젊은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삶을 구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 각 세대가 당신의 정의와 평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다같이 당신의 집을 만들어 가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며, 또 그들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아멘****.*